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449번째 만남

2024년 5월과 6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세대와 문화는 사실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이 커다란 회사의 조직 문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청렴한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청렴한 선택이 모여 완성되는 한전KPS만의 청렴.
함께 만들어 갑시다.



T o g e t h e r w i t h



PROLOGUE

여름의 초입을 맞은 지금,
대나무 숲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는 줄기와
햇살의 파편 아래 더욱 푸르게 물드는 댓잎이
계절의 풍경에 청량함을 더해 반가운 나날입니다.
물론 대나무의 매력은 외연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센 돌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우아한 곡선으로 누울 줄 아는 유연한 태도와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현명함.
우리 선조들이 청렴의 상징 사군자에
대나무를 꼽은 까닭입니다.
청량한 푸르름이 무르익는 이 계절,
청렴한 삶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KPS STORY> 5+6월호에서는
탐욕이 없는 맑은 성품 ‘청렴’에 대해 알아봅니다.

K P S M A G A Z I N E KPS STORY

2024. May+June
Vol. 449

발행인 김홍연
편집인 정영우
발행처 한전KPS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전화 061-345-0114
팩스 061-345-0115
기획·디자인 경성문화사(02-786-2999)
기획·편집·진행 김정필, 한장봉, 김영권

한전KPS 웹진은 www.kps.co.kr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보는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용지·
인쇄로 제작됐습니다.

CONTENTS

04
CEO Letter
“신(新)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로
도약합시다!

08
Special essay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윤리의식,
청렴의 미학

12
청렴 메시지
청렴으로 정립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16
Cheer UP
한전KPS야
안전한 OH를 부탁해

함께 나누기

18
현장에서 만나요
품질에 관한 남다른 자부심
고객만족도가 말합시다
하동사업처

22
축하합니다 1
터빈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의사들의 의사
한전KPS인상 수상자 조명근 선임전문원

24
축하합니다 2
고객이 먼저 찾는 파트너,
해법 제안하는 멀티플레이어
한전KPS인상 수상자 서종화 팀장

26
KPS 클래스
‘인싸’의 품격, 섬세함으로 만드는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

생각 더하기

30
큐스톤
한전KPS의 모든 것!

32
트렌드 인사이드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인간
호모 프롬프트

36
여행 탐방
청량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바다와 숲, 별이 깃든 여행

40
KPS NEWS

46
독자 참여



“신(新)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로 도약합시다!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시작한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전KPS 가족 모두 6월이라는 반환점을 맞아 다시 한번 연초의 목표와 다짐을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속 성장기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취임 초에 여러분과 약속한 다짐과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미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전KPS 직원 여러분!

지난 4월에 있었던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신성장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되짚어 보고 미래 방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며, ‘신(新)동력으로 100년,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라는 신성장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전수출, 해외화력, 성능개선, 신재생, 원전특화를 5대 신성장사업으로 선정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추진해 지속 성장하는 100년 기업으로 나가자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과 방향이 설정되었으니 이제 한전 KPS 직원 모두가 힘써야 할 부분은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입니다.

특히 성능개선과 해외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 확장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 내부통제입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운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물론, 경영활동 중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원관리와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에서부터 재무 성과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임직원의
법령과 규범 준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 제반 활동
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를 통해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 준수를 기본으로 회사의 경영목표에 맞게 추진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및 취약점들을 통제하며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성과를 정확하고 적시성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통제는 소수의 임직원이나 특정부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전사가 합심해서 변화하고 바꾸는 데 동참해야 할 조직 철학이자 문화입니다.

이에 한전KPS 모든 임직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부통제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관리 활동의 일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전KPS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올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로 사상 최고의 전력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 중인 사업소 공사는 적기에 준공해 여름철 전력피크 기간동안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사업소는 처·소장님 책임하에 각별히 공사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 모두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정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공사처럼 지친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시작한 여름철 무더위에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안전임을 명심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사 장 김홍연



내부통제는 소수의 임직원이나
특정부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전사가 합심해서 변화하고 바꾸는 데
동참해야 할 조직 철학이자 문화입니다.

이에 한전KPS 모든 임직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부통제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관리 활동의 일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윤리의식,
청렴의 미학

integrity

조선시대에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함을 겸비한 관료에게 '청백리(淸白吏)'라는 호칭을 내리고 후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선조들이 청백함을 칭송하고 기린 까닭은 그 주체가 오로지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적으로는 사치를 경계하고 공적으로는 소신과 결백함을 지키는 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점차 흐릿해지는 청렴의 가치를 일깨워보자.

글. 한수빈 참고도서. 정약용 <정선, 목민심서>, 국민권익위원회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INTEGRITY

HONESTY

ETHICS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리

청렴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역사 속 인물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대표적인 실학자로 수령이 지켜야 할 책무와 통치 기술, 지방 통치 이념을 담은 <목민심서>를 집필했다. 그는 <목민심서> 청심(淸心)편에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야)라는 글을 남겼는데, ‘청렴은 관리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고 덕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고는 훌륭한 수령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다. 평등하고 청렴한 경제로 불평등하고 부패한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는 정조에 의해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물로는 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재상이라 평가받는 황희를 들 수 있다. 태조 때부터 조선 초까지 4대에 걸쳐 영의정만 18년을 맡았던 그는 집에 비가 썰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번은 세종이 그의 집에 갔다가 멍석만 한 허름한 집에 책과 된장, 고추장만 있는 것만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 “등이 가려울 때 멍석에 대고 비비면 시원하겠구려”라는 농담을 건넸다는 일화는 그가 얼마나 욕심 없는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준다. 훗날 다산 정약용조차 ‘조선조를 통틀어 청백리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했을 정도이니 공직자의 청렴함이 후대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으로 오늘날 리더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순신 장군 역시 늘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 그가 전라 좌수영에 속한 발포에서 만호라는 벼슬을 할 당시, 좌수사가 거문고를 만든다며 관아의 오동나무를 베어 오라 지시하자 “좌수사가 아니라 임금님이라도 오동나무는 공적인 용도 외에 베지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한다. 예산과 공용물은 공적인 용도 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세로 손꼽힌다. 공직자는 물론 기업에 속한 이라면 어떤 작은 물건일지라도 공적인 것은 사사롭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청렴에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

존경받으면서 오래 존속하는 기업은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해 ESG경영과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청렴’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필수적으로 인정받는 가치이자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건전한 국제 상거래 정착을 목표로 OECD가 주축이 되어 만든 ‘부패방지라운드(Corruption Round)’에는 OECD회원국을 포함해 34개국이 협약을 체결했고, 국내외 많은 기업이 윤리경영을 선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윤리경영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했다. 끊임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100년 넘게 영속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다. 1886년 설립된 미국의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은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길이라 믿는다. 윤리경영 지침으로는 최고의 품질 유지와 상품 가격 유지, 건전한 이익 등 고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부 직원들을 위한 지침 또한 잘 마련되어 있다. 직원들은 각자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며, 채용과 승진, 능력개발 등에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안전한 근무환경까지 지침에 포함된다고 하니, 다변화된 청렴의 기준에 이보다 더 부합할 수는 없다. 무려 2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은 어떨까. 화학 기업답게 자연과 생명체를 존중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과학의 힘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윤리지침으로 내세웠다. 기업의 궁극적인 역할과 정체성,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는 것 또한 청렴



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위반하는 것과 부정부패를 청렴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면 현대에는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것도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해야 할 때

청렴윤리경영은 조직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에도 달려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윤리의식이다.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 모여 사고로 이어지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나 직장 내 갑질 사건, 나아가 많은 사상자를 낸 여러 대형 참사까지 관계자와 담당자의 올바른 윤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청렴의 ‘렴’은 청렴할 염(廉)으로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염치’와 같은 한자를 쓴다.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스러움을 뜻하는 ‘파렴치’, 염치가 없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몰염치’ 모두 같은 한자다. 이 말인즉슨 청렴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양심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베테랑>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자존심을 뜻하는 속어)가 없냐’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 서도철(황정민 분) 형사가 양심을 저버린 동료 형사에

게 외친 한마디로 직업적 윤리의식을 함축했다. 단 한 문장으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비윤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정의를 바라는 이들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기에 아직까지도 회자된다. 많은 이가 깨끗한 조직과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청렴윤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한전KPS는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본부터 바꾸려는 혁신을 감행하고 있다. 탄탄하게 쌓은 골조가 거친 풍파를 견뎌내듯 고객과 사회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의식을 묵묵히 지켜 나간다면 존경받으며 오래 존속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CJ엔터테인먼트

청렴의 ‘렴’은 청렴할 염(廉)으로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염치’와 같은 한자를 쓴다.

수치심을 모르고 뻔뻔스러움을 뜻하는

‘파렴치’, 염치가 없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몰염치’ 모두 같은 한자다.

이 말인즉슨 청렴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양심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렴으로 정립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이성규 상임감사는 올 초 취임식에서 “청렴과 공정의 의지로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 상임감사는 직접 전국 사업소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하며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깨진 유리창을 발굴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그에게 한전KPS가 나아갈 올바른 청렴혁신의 길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한수빈 사진: 임태현

부패 ZERO! 청렴韓 한전KPS 실현

한전KPS는 2024년을 청렴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청렴혁신TF’를 가동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감사를 비롯해 감사실장 및 청렴혁신 추진단원 등 총 1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청렴혁신TF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패사건을 근절하고,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8년 연속)과 인권경영시스템(4년 연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관특화 청렴기반 조성, 소통공감 청렴문화 확산, 지속가능 윤리경영 지원, 부패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메인 기조로 세우고 현재 16개 전략 과제를 수행 중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렴의 의미도 다변화된 만큼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은 정부정책, 기관특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입사 5년 미

만의 MZ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계층별, 세대별, 직무별로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 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소통공감 청렴문화 확산 과제로 MZ세대 맞춤형 반부패 청렴 협의체 신설, 청렴옴부즈만 개편 및 교류 활성화, 트렌드 반영 청렴정책 홍보강화, 거래회사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한 업 특성에 맞는 고위직 주도의 반부패·청렴정책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 제도 및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한전KPS는 상임감사 취임 직후 노·사·감 합동 청렴感파트너스와 고위직 대상 내부통제·청렴·윤리 공감교육을 신설했으며, 이 밖에도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고, 생활부패 척결 캠페인을 도입하고 신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팎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 반부패·청렴정책

비전	소통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韓 KPS			
목표	부패사건 ZERO화	종합청렴도 최우수 (2등급 이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8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4년 연속) 유지	
4대 추진 전략	① 기관특화 청렴기반 조성	② 소통공감 청렴문화 확산	③ 지속 가능 윤리경영 지원	④ 부패방지 내부통제 강화

“

상임감사를 비롯해 감사실장 및 청렴혁신 추진단원 등 총 1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청렴혁신TF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패사건을 근절하고,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관특화 청렴기반 조성, 소통공감 청렴문화 확산, 지속가능 윤리경영 지원, 부패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메인 기조로 세우고 현재 16개 전략 과제를 수행 중이다.

”

제18대 상임감사
이성규



사소함에서 비로되지는 청렴 실천

한전KPS의 제18대 상임감사로 취임한 이성규 상임감사는 지난 30여 년간 경찰조직에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모든 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특히 경찰공무원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정직과 투명성이 곧 자신이라 여기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어떤 조직이라도 사소한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범죄 심리학의 ‘깨진유리창 법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다.

“도시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할 경우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사소한 무질서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주 작은 상황에서 비로되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나’부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제대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투명테이프를 붙이듯 임시방편으로 마무리할 경우 결국 치명적으로 작용해 조직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덧붙여 기업의 청렴은 개인이 이룰 수 없기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이 상임감사는 올해 안에 전국 64개 사업소를 모두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절반이 넘는 사업소에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있다.

“소속, 연령 등의 차이에 따라 청렴문화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고위직과 일반직, 또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체감하는 것도 다르죠. 제 역할은 임기 동안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통의 장을 열고 경영진에게 개선점을 전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만고불변의 법칙

이성규 상임감사는 국가 기업체, 특히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직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 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이 가치 있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일 터. 그가 고위직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청렴·윤리 공감교육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MZ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고위직이 주도하는 ‘청렴공약 챌린지’를 개선해 공약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말로만 이러한 정책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는 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하죠. 과거의 경직된 리더십 방법을 버리고 MZ세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으로 다가선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 겸손, 열정이라는 세 가지 생활철학을 평생의 신념으로 지키며 살아온 이성규 상임감사. 처음 한전KPS에 부임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주 작은 상황에서 비로되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나’부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여전히 깨진 유리창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수리하고 있다. 끝으로 “한전KPS가 지난 40년간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품질경쟁력을 기반으로 발전정비분야의 최고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청렴한 조직문화 덕분”이라며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이 상임감사를 필두로 감사실에서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감 청렴혁신 원년의 해 선포



2월 22일 노-사-감(노동조합, 회사, 감사실) 공동 ‘청렴혁신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렴혁신 원년의 해 선포문’을 공동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화합을 다짐했다.

상임감사와 함께하는 MZ버거청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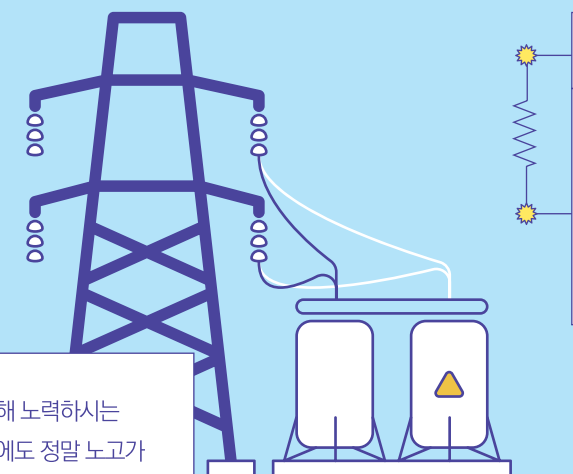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인 조직구성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성규 감사의 제안으로 5월 27일 상임감사와 MZ세대가 모여 청렴을 주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버거 청담회’를 개최했다.

청렴혁신 TF 킥오프 미팅



4월 23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된 ‘청렴혁신 TF’의 킥오프 미팅이 이성규 상임감사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미팅은 본사 처·실장과 전국 사업처·소장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전력사업처 정기현

OH 현장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는 동료들 덕분에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

종합기술원 정호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후배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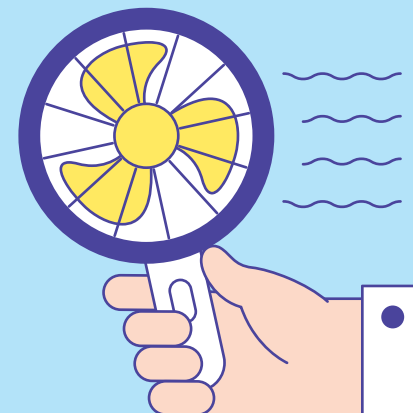
한전KPS야 안전한 마를 부탁해!

한전KPS의 업무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OH 기간이 돌아왔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이 기간이면 직원들의 업무 역시 분주해진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을 다하는 한전KPS인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전력은 오늘도 이상 무!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서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보낸 한전KPS인들의 소중한 응원 메시지를 함께 만나본다.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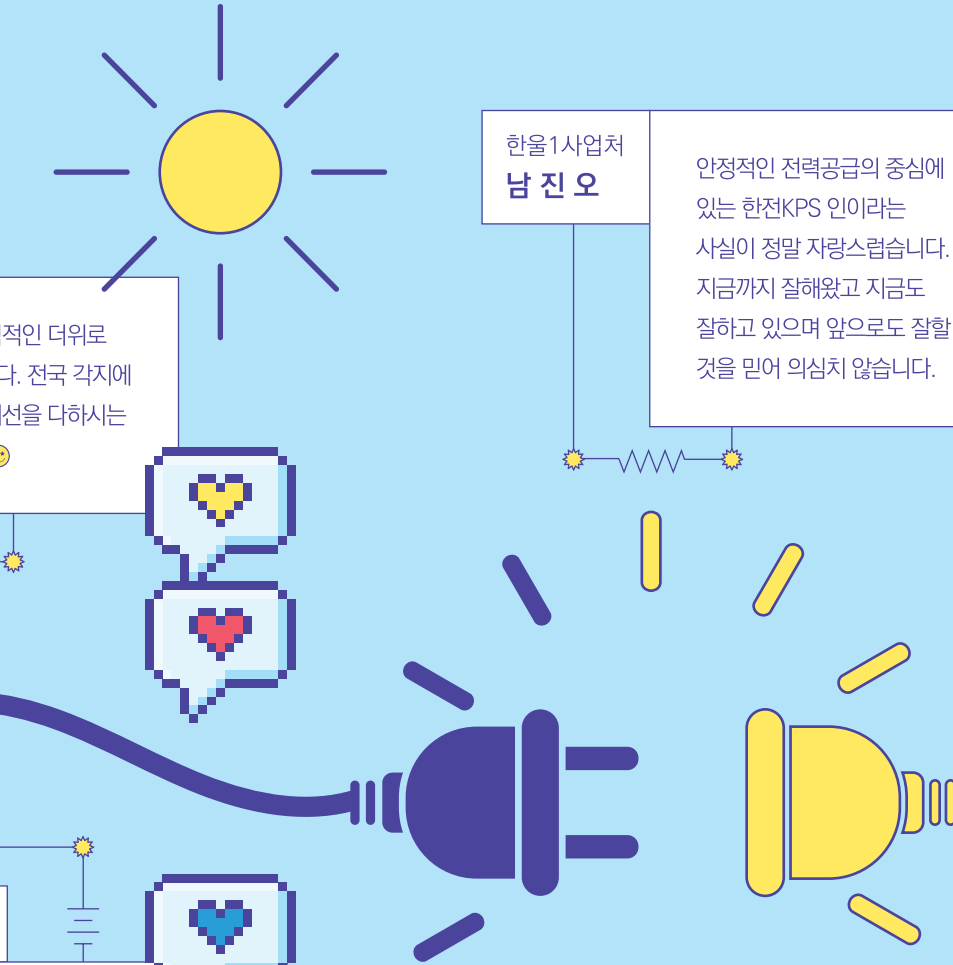
고리3사업소 조영상

우리 회사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OH!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업무적인 발전과 보람이 큰 뜻깊은 기간입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



영흥사업처 안승기

우리가 흘린 땀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바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람칩니다. 물론 힘들지만 자긍심을 갖고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



여수사업처 김종현

일교차가 큰 날들도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요즘입니다. 전국 각지에 전력수급을 위해 정비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후배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

한울1사업처 남진오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심에 있는 한전KPS 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구경북전력지사 이수현

말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해내시는 동료 선후배님들 존경합니다. 덕분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진사업처 전종빈

무더운 날씨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후배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셔서 무사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새울1사업처 백성일

한전KPS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합니다.



*OH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품질에 관한 남다른 자부심 고객만족도가 말합니다

하동사업처

하동화력 제3호기부터 제8호기까지 터빈 발전기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공사를 담당하는 하동사업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회사의 경쟁력이 품질에 있다고 믿고 동료들과 함께 책임감 있게 달려온 결과, 2023년 한전KPS 품질명장을 배출하고 고객만족도 만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글. 곽한나 사진. 임태헌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 Gold Award 수상 쾌거

하동사업처는 2018년 11월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과 2019년 7월 최초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15) 산업설비 및 발전설비에 관한 시공 및 정비 서비스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활발한 분임조 활동을 통하여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가해 매년 우수한 결과를 얻어왔다. 2023년에는 전국을 넘어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참가해 Gold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도 안았다.

하동사업처가 이처럼 안전과 품질에 심혈을 기울여 온 데에는 하동사업처의 출발 배경과 관련이 깊다. 1997년 하동화력 제1호기 준공 이후 운전을 시작한 이래, 발전기 정비는 민간업체에서 수행해 왔다.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 운영과 지속적인 면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했다. IMF 시기와 맞물리면서 경영 자체가 힘들어진 민간업체도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으로서 한전KPS가 하동화력의 정비와 계획예방정비공사를 도맡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후발주자로 정비에 참여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신뢰는 결국 안전성과 품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고자 더욱 노력했을 테고요.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필수인데요. 한전KPS에서도 하동사업처가 조직력이 강하고 전통 있는 사업장으로 정평이 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1월 하동사업처에 부임한 이기대 처장은 하동사업처의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분임조 활동을 이어가면서 전국과 국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이끄는 품질명장(김병찬 대리)도 배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에는
전국을 넘어
국제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해
Gold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도
안았다.



이기대 처장은 오랜 기간 요르단과 인도, 우루과이 등 해외 사업처에서 근무하며 자체 수급부터 발전기 준공, 정비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해외 현지 직원과 손발을 맞추며 일해온 그에게 있어 국내 사업장, 특히 하동사업처 구성원들의 아무지고 굳센 조직력은 늘 감탄을 자아낸다.

“눈에 보이는 여러 지표를 통해 실력과 열정을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하동사업처만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 3일 앞당겨 완료해

하동사업처는 지난 5월 28일, 제3호기 계획예방정비공사(OH공사)를 안정적으로 마쳤다. 당초 3월 6일에 시작해 5월 31에 준공할 일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을 약 3일 정도 앞당겨 마무리한 셈이다. 공사기간 단축으로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도 적지 않다.

“하동사업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정확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없이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구성원들에게 무척 고맙습니다. 아직 부임 초기지만,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워낙 잘 해주기에 처장으로서 부딪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무탈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고 싶습니다.”

이기대 처장은 중대재해 ZERO 달성과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하동사업처의 안전활동을 강조한다. 사업장 위험시설 및 장비, 아차 사고, 불안전 행동에 대한 위험 신고와 업무개선활동제도를 운영하며 모든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의 경우, 즉시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용품을 근거리에 비치하고 소지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운영 중이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에서 위험을 인지한 경우, 그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해 작업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동사업처 허광영 노조위원장 업무실 입구 벽면에는 하동사업처 구성원들과 함께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매일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며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잡는다.

“매일 같이 밥 먹고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하동사업처는 특히 오랜 경력과 경험을 지닌 구성원들이 많은데요.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구성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전은 구성원 간 소통으로부터 보장된다

이기대 처장은 안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한다.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친해야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설명한다.

“안전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대화가 없고, 소통이 안 되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간에 잘 화합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제로 사업장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하동사업처를 향한 저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허광영 위원장은 소통을 위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한다.

“소통은 역시 소통이죠. (웃음) 그럼에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 직군이 기계인데, 전기 쪽이나 행정 쪽에 가서 경험해 보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니 비로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하동사업처가 전통이 있고 화합을 잘 이뤄온 사업장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사업처 앞에는 구성원들의 휴게소 두 동이 따로 마련돼 있다. 휴게소에 붙여진 도담, 소담이라는 이름과 문구가 무척 인상적이다. ‘도담(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소담(조용하게 함께 이야기하기)’에 담긴 그 마음처럼 하동사업처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소통하며 앞으로도 서로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 나가길 기원해 본다.

Mini Interview



이 기 대 처장

Q. 하동사업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전KPS 하동사업처는 국내 민간업체와의 정비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사 경쟁력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회사 전체 평균 점수인 98.7점보다 높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품질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져온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사업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겠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오고 싶은 행복한 하동사업처가 되도록 구성원들의 소통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허 광 영 위원장

Q. 올해 OH공사를 안정적으로 준공한 구성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준 구성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고객사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처장님과 간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정책 변화가 이뤄지면서 화력 발전기 기동 정지가 많아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밤이나 새벽 근무, 주말 근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동사업처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터빈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의사들의 의사



한전KPS인상 수상자
조명근 선임전문원

한전KPS 전국 사업장에서 터빈과 발전설비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을 ‘의사’라고 한다면, 조명근 선임전문원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발전설비 특성상 그는 새벽에도 응급 호출을 받는다. 설비는 정성을 다한 만큼 보답한다고 믿는 조명근 선임전문원. 자신이 지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자 후배 양성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글. 곽한나 사진. 임태현

터빈 난제 해결하며 쌓은 기술력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한전KPS인상을 수상하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30년 가까운 회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조명근 선임전문원은 1999년 삼천포 4호기의 고질적인 진동 현상의 원인을 찾고 해결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당시 4년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관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으로 힘겨웠던 시기였다.

“고심 끝에 배관정렬 문제를 진단하고 최적으로 재정렬한 결과, 공사 후 시운전에서 진동없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운전되는 터빈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후 조명근 선임전문원은 사업소 터빈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태풍에 의한 삼천포 전호기의 돌발정지를 완벽 복구하고, 각종 사례를 통해 쌓아온 증기터빈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고객사에 제공한 솔루션만 177건에 이른다. 즉각적인 매출과 함께 각종 용역을 수주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회사와 후배들을 향한 애정으로

정비기술 지침서 만들어 배포

조명근 선임전문원은 각종 정비기술 지침서와 정비 절차서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국내 최초 1,000메가와트 화력발전소인 신보령 사업소 설비를 담당하며 고품격 정비를 위한 지침서를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했다.

“측정법과 조립 등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진을 하나하나 붙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들고 보니 파워포인트 120장 분량이었어요. 현장에서는 이 지침서를 코팅해서 각각의 위치에 배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잘 만들었구나, 뿌듯함이 들었죠. 신보령 사업소 이후 고성하이, 신서천, 강릉안인 설비에도 지침서를 계속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어쩌면 개인 자산과도 같은 기술 노하우를 표준화해 보급하는 데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회사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설비나 정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배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조명근 선임전문원은 지침서 개발 외에도 증기터빈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현장 OJT와 전수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접 취득한 특허와 실용신안 6건

그럼에도 ‘I’m still hungry’

조명근 선임연구원은 현재 AI 이미지 인식 기반 베어링 진단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전문원이 현장을 직접 찾지 않고도,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베어링 손상 알고리즘을 통해 손상 여부와 잔여 수명을 알 수 있는 진단 예측 프로그램이다. 신재생에너지 선두 주자인 수력 및 양수 정비 기술 고도화 연구도 그의 관심 분야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직접 고안한 기술로 받은 특허와 실용신안은 6건이다.

“원동력이요?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있죠. ‘I’m still hungry(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쌓고, 외국 원서나 논문을 찾아봐도 늘 부족하고 목마른 느낌이 드네요.”

그는 2018년 한전KPS 위상 확립을 위한 상징물(증기 터빈 실물 ‘에너지 날개’) 설치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사계절 꽃이 피고 눈이 오는 배경 속에서 시민분들이 산책하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금처럼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돕는 조력자로 남고 싶습니다.”

회사가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 서고 싶어요.
현장 터빈 전문가들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할 것입니다.



고객이 먼저 찾는 파트너, 해법 제안하는 멀티플레이어



한전KPS인상 수상자
서종화 팀장

서종화 팀장은 2022년과 2023년 포스코에너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개인 감사패를 받았다.

돌발상황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제안해 성과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후 고객사는 서종화 팀장을 기술자문으로 반드시 투입해달라는 요청서를 담아 수의계약을 맺었다.

“나 하나가 곧 한전KPS의 이미지”라고 말하는 서종화 팀장은 오늘도 웃는 얼굴로 고객에게 먼저 다가선다.

글. 곽한나 사진. 임태현

인천포스코 복합 3호기 공사

일면식도 없던 직원들과 호흡 맞춰 나가

서종화 팀장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리더와 현장대리인으로 투입된 공사는 130회에 이른다. 수많은 공사가 모두 기억에 남지만, 그에게 가장 특별했던 사례는 인천 포스코 복합 3호기 대외공사를 맡았을 때다. 서종화 팀장 혼자 투입되어 일면식도 없는 고객사 직원들과 손발을 맞추게 된 것이다. 터빈 경험자는 그가 유일했다. 옆 친 데 덮친 격으로 터빈 특정 부위에 마찰(Heavy Rubbing)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비를 외부에 맡기면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최소한으로 절개하고 분해해 조립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와 계약되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지만, 제 일처럼 맡아 5일 만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무척 짜릿했어요. 무엇보다 고객사 분들이 크게 감동하셨죠.”

서종화 팀장은 고객사가 가끔 어려운 부탁을 할 때에도 두 발 벗고 돕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고객의 난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고객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관계가 전환됩니다. 협력업체가 아니라 서로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고객 신뢰를 얻고

무사고, 퍼펙트 시공을 이끄는 비결

서종화 팀장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지켜온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현장에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지 말 것’ ‘업무 시작 전 전문가로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할 것’ ‘업무 후에는 불편했던 애로사항을 듣는 데 집중할 것’ 세 가지다. 모든 공사에서 안전 무사고, 중대재해 ZERO화, 설비 무사고와 퍼펙트 시공을 끌어낸 비결이기도 하다.

“순간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객과의 관계를 멀리 봅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들고 먼저 다가가는 편이에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소한 농담도 건네고요. 고객의 실수가 있어도 모른 척 눈감아 주고, 가려운 곳이 있다면 포착해서 긁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이 다 아시거든요. 서로에게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종화 팀장은 자신의 이미지 하나로 회사 평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여기기에, ‘내가 곧 한전KPS’라는 마음으로 어떤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대외공사를 나가면 생각보다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청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안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책임감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사실 시키는 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웃음)

머무르는 직원과

성장하는 직원은 다르다

서종화 팀장은 한전KPS에서 많은 것을 받은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기계정비원으로 입사한 지 2~3년 만에 조장이 되어 맛본 첫 시운전의 쾌감은 그를 사내자격 감독 레벨4까지 이끌었다. 그는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증기와 가스터빈 측정 및 터빈 정비 사내강사로 출강하고, 터빈 현장 OJT 멘토, 사내자격 문제 검토위원, 교안 교재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저는 공부하기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제 귀를 잡아서 일보다 공부가 먼저라고 말씀해 주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현재는 퇴직한 박점태 책임전문원입니다. 저에게 회식하든, 야간 근무를 하든 꼭 1시간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느새 저도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머무르는 직원과 성장하는 직원은 다르다고 말하는 서종화 팀장은 자신의 모습도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 업무에 능통한 멀티플레이어로, 소통에 열려 있는 선배로 기억되고자 노력하는 이유다.

공사를 무사리 마무리하고
고객사 분들과 사업소 직원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떠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인싸’의 품격, 섬세함으로 만드는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



원두를 분쇄하고, 물을 끓이고, 서버와 종이 필터를
적신 뒤 원두에 물을 살짝 부어 뜸을 들인다. 이후
가느다란 물줄기를 천천히 내리면 비로소 한 잔의
향긋한 커피가 완성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 피로를 희석하기 위한 용도로 ‘수혈’했던
아메리카노는 잠시 잊고 오늘날만큼은 느낌의
미학이라 불리는 핸드드립 커피를 즐겨 보기 위해
한전KPS 본사 및 인재개발원 직원 4명이 모였다.
글. 한수빈 사진. 임태현



낮가림이 뭐죠? MBTI ‘E’가 친해지는 법

다양한 커피 머신과 핸드드립 도구들이 즐비한 나주혁신
도시의 바리스타 학원. 차분한 공기가 감도는 공간에 인
재개발원 교육기획실 윤희원 주임, 전략기획처 김창모 직
원, 경영혁신처 황덕은 주임, 품질경영처 문태현 주임이 들
어서자 어느새 왁자한 분위기가 되었다. 자연스레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이인 듯한데,
웬걸 동기인 윤희원 주임과 문태현 주임을 제외하고는 모
두 초면이라. 알고 보니 네 사람 모두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서도 외향형 성격을 뜻하는 ‘E’ 성향으로, 팀 내에서
도 분위기 메이커를 도맡고 있는 일명 ‘핵인싸’로 통하고
있었다. “같이 커피클래스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
처를 받아서 어제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상의 끝에 촬
영에 쓸 선글라스도 소품으로 각자 챙겨왔는데, 클래스 마
치고 단체 사진 찍을 때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평소 커피 취향은 라떼를 즐겨 마시는 김창모 직원을 제외
하고 모두 한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얼죽
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파였다. 한 가지 공통점
은 모두 커피 맛을 음미하기 보다는 루틴처럼 마시거나, 졸
음을 쫓기 위해 마신다는 점. 그리고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
를 마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날만큼은 로스팅한 원
두 가루를 필터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천천히 커피를 내
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핸드드립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압
력을 가해 맛이 강렬한 에스프레소 추출과 다르게 커피 본
연의 향과 맛을 깔끔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회사에서는 도구를 모두 갖추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핸드드립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드립백’ 추출과
그라인더, 드리퍼, 종이 필터, 서버 등 본격적인 도구로 추
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배워보기로 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사이드(Insider)’에 아주 커다란다는
뜻의 ‘핵’을 붙인 신조어로, 무리와 잘 지내는 사람을 뜻한다.



내리는 이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맛

“드립백과 핸드드립 모두 기본은 같아요. 1인 분 기준 원두량은 10g 물은 150ml, 이걸 3분에 걸쳐서 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니 까 각자 한 번씩 커피를 내려 본 뒤 맛에 어떤 차이가 있나 볼 거예요.” 첫 번째 차례는 황덕은 주임과 문태현 주임. 타이머를 맞추고 원두 위로 물을 붓자 거품이 동그랗게 솟아오르고 이내 주변으로 향긋한 내음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차분했던 분위기도 잠시, 생각만큼 잘되지 않자 두 사람이 선생님에게 폭풍 질문을 던진다.

“여기는 커피가 가운데로 팔팔 떨어지는데요?” “물이 가득 찼 때까지 부어요?” “여기 빵(거품)이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다행히 처음이지만 잘했다는 선생님의 칭찬과 함께 각각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되었다. 이제 맛을 볼 차례. 같은 원두지만 신기하게 커피의 맛이 다르다.

“커피는 덜 괴롭힐수록 맛있어져요. 처음에 조금씩 커피를 내린 문태현 님의 커피가 더 맛있는 이유예요. 바로 물을 붓지 않고 한 번 적시고 기다리면서 뜸을 들인 뒤 한 방울씩 떨어지게 3분에 걸쳐 물을 붓는 거예요. 30초까지 물을 붓고 기다리는 게 1차 추출, 2분 20초까지 물을 조금씩 부어 2차 추출, 2분 21초부터 다시 3차 추출, 총 3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내리는 거죠.”

설명을 들은 김창모 직원과 윤희원 주임이 시간분배에 신경 쓰며 커피를 내렸다. 이번에도 역시 맛이 각각 다르다. 같은 원두를 사용하더라도 분쇄도와 추출 시간, 물 온도, 물줄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미세한 맛의 차이가 생기는 것. 그게 바로 핸드드립이 가진 섬세한 매력임을 조금씩 알아가는 네 사람이었다.



경영혁신처
황덕은 주임



품질경영처
문태현 주임

비빔수록 필요한 잔잔한 여유

원리도 익혔으니 드리퍼를 이용해 더 많은 양의 커피를 추출해 보기로 했다. 드립백은 정해진 용량에 물을 수직으로 낙하시키기 때문에 초보자도 별다른 스킬 없이 어느 정도 맛을 보장할 수 있지만, 서버와 드리퍼를 이용한 핸드드립은 필터의 입구가 크고 넓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다. “공식은 같아요. 3분 동안 3번에 걸쳐서 천천히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원두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네 사람. 하지만 성격에 따라 내리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다는 김창모 직원은 끝까지 일정하게 물을 부어 추출 후에도 원두 찌꺼기의 모양이 가장 예뻐다. 반면 드립백 수업에서 칭찬을 받았던 문태현 주임은 마지막에 물을 많이 부어버린 탓에 원두 찌꺼기가 울퉁

불통한 모양새였다. “카페에서 바리스타 어께 너머로 구경할 땐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 보니 어렵네요. 사소한 부분에서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핸드드립 클래스로 또 다른 커피의 매력과 바쁠수록 잔잔한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네 사람. 특히 윤희원 주임은 이날을 계기로 국내 브루잉 커피 장인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완성한 드립백은 각각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계획이라며 정성스레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활발한 성향 덕에 각 팀에 에너지를 주는 존재로 톡톡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분명 있을 터. 그때마다 오늘처럼 이곳이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여유를 통해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속 심표를 얻길 바라본다.



그때마다 오늘처럼 이곳이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여유를 통해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속 심표를 얻길 바라본다.



인재개발원
윤희원 주임



전략기획처
김창모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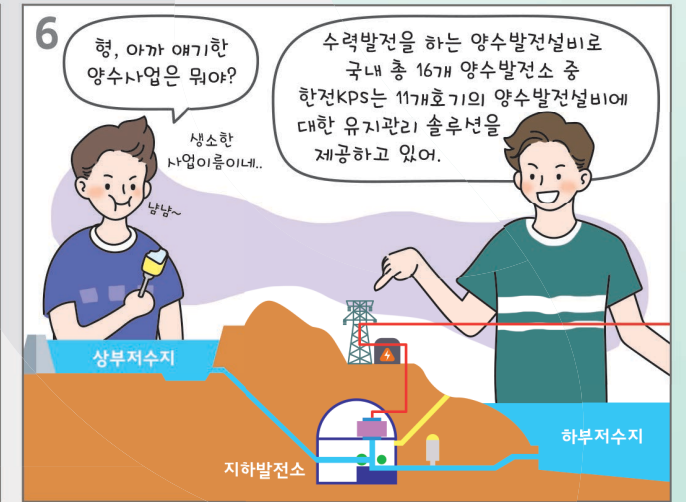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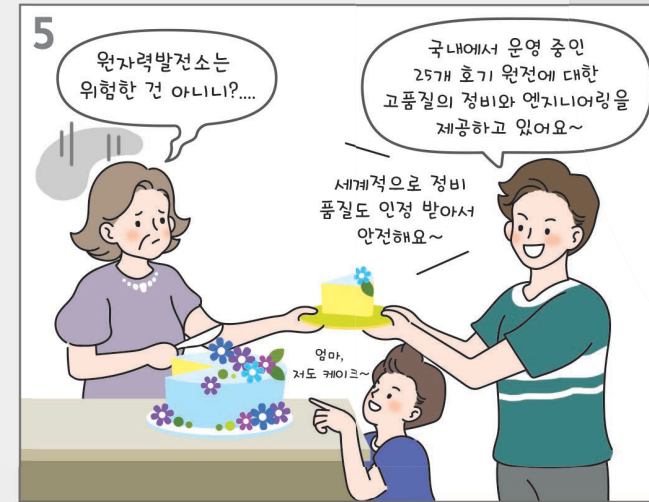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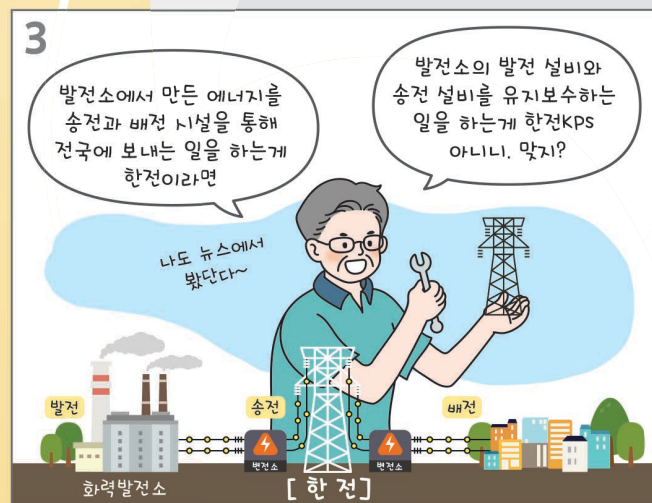
*KPS 클래스의 비하인드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전KPS의 모든 것!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내 기술 자립은 물론 축적된 기술과 정비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전KPS. 하지만 한전KPS의 실질적인 업무 영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84년부터 4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며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찾고 있는 한전KPS의 업무 분야는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본다.

글 편집실 그림 유민



prompt:

HOMO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인간
호모 프롬프트

PROMPTUS

인공지능은 이제 복잡한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 놀라운 결과물까지 만들어 낸다. 이를 위해 모든 인간은 검색창에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명확한 결괏값을 낼 수 있도록 정교하고 정확하게 말이다. 앞으로 우리의 업무는 대부분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일로 바뀔 것이고 업무 효율은 곧 우리가 입력하는 명령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글 김우정(벡터그룹 한국지사 수석 컨설턴트)



HOMO + PROMPTUS



영화처럼 바뀐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매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쏟아지고 있다. 덕분에 많은 직장인들에게 인공지능은 업무에 유용한 도구이자,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경쟁자가 됐다.

지난 5월 13일, 오픈AI가 발표한 보고 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ChatGPT-4o는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다. ChatGPT-4o는 영화 <그녀(Her)>의 인공지능 ‘사만다’와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를 현실에 옮겨놓은 듯 정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진화 속도보다 빠른 인공지능의 발전 앞에 인류는 새로운 자질을 요구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다.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Homo)’와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어를 뜻하는 ‘프롬프트(Promptus)’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조어다.

대부분의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호모 프롬프트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사용할 기술이 이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2차 산업 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산 가동을 돕는 공장형 기술이 주를 이뤘다. 첨단 시스템의 등장은 대부분 육체적 노동을 대체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기술은 무려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자부하던 ‘지능’을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인간은 프롬프트에 능숙한 관리자가 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입력하고, 진행의 모든 과정을 통솔하는 책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모 프롬프트다.

호모 프롬프트,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인간

인공지능을 배우며, 우리의 역할을 영화감독에 비유해 보면 이해가 쉽다. 영화감독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감독은 편집, 음악, 미술, 조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감독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은 감독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지금의 인공지능에 비유한다면 편집 감독은 ‘Runway’가 음악 감독은 ‘Udio’가 미술 감독은 ‘Dall-E’가 맡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은 전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인공지능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콘텐츠의 생성과 디자인, 사용자 경험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과 창의적인 방향 설정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인간은 영화감독처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전체적인 목적을 유지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능력과 인간의 창의적 사고가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법

이를 위해 직장인들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기술 ‘프롬프팅(Prompting)’을 습득해야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 프롬프팅하는 기술을 ‘프롬프트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 프롬프트 스토리텔링 훈련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먼저 기존 검색 엔진을 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키워드형 검색어다. 인공지능은 엔진이 아니라 지능이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입력해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의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라는 검색 입력어와 “나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쌍문동에 살고 있어. 오늘 우리 동네의 날씨에 대해 시간대별로 알려줘”라는 프롬프팅의 결괏값은 다르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인간과 대화하는 태도를 지녀야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를 쓰면서 가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인물

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문법 알려줘”가 아니라 “너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하지만 직장 동료인 제니의 캐릭터로 나와 대화할 거야. 제니는 외향적인 30대 여성으로 어렵지 않은 단어만 사용해서 묻고 대답하는 인물이야. 또한 인문학적 소양이 넓어 대화의 주제를 다양하게 끌어 내. 지금부터 제니가 돼 점심을 먹는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던지며 내가 답하는 문법의 오류를 교정해 줘”가 더 나은 프롬프팅이다.

우수한 답변을 이끄는 것은 똑똑한 질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을 다루는 능력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프로그램적으로 배우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호모 프롬프트는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동시에 역사와 철학, 법학, 언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이해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인간 호모 프롬프트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통찰력은 직관에 근거한 인간의 사고법으로 사물이 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공지능이 체계적인 사고법(Systematic)을 사용해 논리적인 오류를 걸러낸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질문 또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나은 결괏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은 끝이 없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위기의 순간은 기회의 계기가 되듯 막연하게 생각한 인공지능의 시대는 발전과 혁신의 도움닫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방향의 질문을 어떻게 던질지, 또 그 답변을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청량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바다와 숲, 별이 깃든 여행

자연은 여름에 가장 풍성하고 다채로운 얼굴과 자태를 드러낸다.
덥고 지루한 여름날을 앞두고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청량하고 신선한 바닷바람은 물론 피톤치드 가득한 숲,
다채로운 매력의 서핑 성지, 로맨틱한 밤하늘을 품은 여행지를 모았다.

글 김주희 사진 한국관광공사

울산 슬도 해파랑길



굽이굽이 비경이 살아 숨쉬는 해안길
울산·슬도·해파랑길 & 대왕암공원



‘섬’ 여행이 선사하는 특유의 여운이 있다. 작고 외딴 땅에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고 아늑한 정서를 만끽할 수 있다. 울산에서 지금 가장 핫한 명소를 사랑받고 있는 슬도는 방어진항으로 들어오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바위섬이다. 본래 무인도였던 만큼 섬 전체에는 청정한 자연이 옹골차게 들어차 있다.

슬도에서 해파랑길 8코스를 따라 가면 대왕암공원까지 닿을 수 있다. 대왕암은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 큰 바위 밑에 잠겨 호국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바위다. 대왕암까지 가기 위해서는 100년 전 방풍림으로 조성된 소나무 숲을 거쳐야 한다. 15,000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마치 화폭에서 옮겨온 듯 저마다 빼어난 기백과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울울창창한 길목을 따라 걷다 숲을 지나면 일순 시야가 탁 트이면서 청량한 색감의 바다가 펼쳐진다. 굽이굽이 돌 때마다 바다와 해안 절벽이 빚어낸 드라마틱한 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탈을 오르내리길 몇 차례, 마침내 바다에서 솟구친 듯한 대왕암이 형상을 드러낸다. 비장한 광경이 전설과 오버랩되면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공원 내 출렁다리도 놓치지 말 것. 303m 길이로 중간 지지대가 없는데, 파도치는 바다 위를 공중에서 거니는 듯한 아찔한 기분을 선사한다. 대왕암공원과 맞닿은 일산해수욕장에서 낮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로맨틱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Q 울산시 동구 등대로 95(대왕암공원)

☎ 052-209-3738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고운 빛깔 바다를 오감으로



서핑은 여름 바캉스와 더없이 잘 어울리는 레포츠다. 오감으로 파도와 바닷바람을 생생히 감각하며 즐기는 서핑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막 서핑의 재미를 알아가는 초보라면, 혹은 이번 여름을 이용해 서핑에 입문해보고 싶다면 서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협재해수욕장으로 떠나보자. 비양도를 배경으로 비취빛의 바다색이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협재해수욕장은 공항에서 가깝고 규모도 넓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변이다. 최근에는 힙한 감성의 펍이나 이색 카페 등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더욱 풍성한 감흥을 선사한다.

약 200m의 백사장은 경사 3~8도로 수심이 얇고 경사가 완만하고 서핑 강습소나 체험 프로그램, 장비 렌탈 숍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처음 입문하는 이들에게도 제격이다. 낮에는 지중해 휴양지처럼 꾸며진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고, 밤에는 펍과 클럽에서 선셋 파티를 만끽할 수 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는 짙은 송림이 있어 야영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전복과 소라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멀지 않은 곳에는 한림공원과 협재굴, 명월대, 황룡사, 영각사 등이 있어 해수욕과 함께 주변의 명소도 둘러볼 수 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29-10

☎ 064-728-3981



강원도 태백은하수길
반짝반짝 청정한 은하수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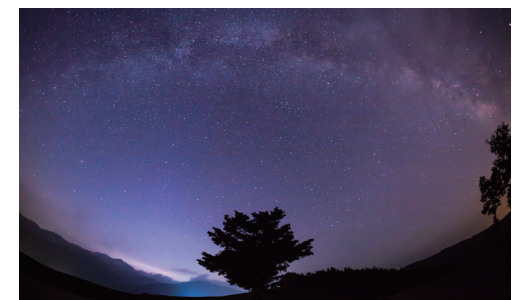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서늘한 도시로 떠나보자. 8월 평균기온 25℃인 태백시는 한여름 땀별도 잠시 쉬어가는 고원 도시다. 평균 해발고도 900m로 국내 도시 중 가장 높고, 빙공해 지수가 낮아 별을 관찰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특히 6~8월에 보는 은하수는 1년 중 가장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산등성이에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찬란하게 빛나는 은하수를 감상하고 있노라면 긴 여름밤의 지루함이 절로 잊힌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해발 1330m 함백산 은하수길에서 별들이 머리 위에 쏟아지는 드라마틱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인기 스폿은 팔각정이 있는 오투전망대다. 팔각정에 앉아 유유자적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 또 팔각정을 은하수와 한 프레임에 담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초 태백시가 오투전망대의 팔각정을 도색하고, 펜스에 LED 조명을 설치하며 재단장했는데, 어두운 밤 은하수 위를 걷는 듯한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해발 686m의 오로라파크는 미국, 스위스, 호주 등 세계 각지에 있는 고원지대 기차역을 소개한 공간이다. 오후 10시에 공원 내 모든 조명이 소등되는데, 고래 조형물과 은하수를 함께 올려다보면 마치 고래가 밤하늘을 헤엄치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조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태백에는 탄탄파크, 구문소, 태백산 당골광장 등의 은하수 명소가 자리하니 올여름 잊지 못할 여름밤 추억을 남겨보자.

Q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6-20(오투전망대)

☎ 033-550-2828



본사 뉴스

발전안전사업본부 신임 부사장 취임



우리 회사는 4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부사장은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9년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며 해외발전사업처장, 원자력정비기술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도윤 부사장은 취임사에서 “발·송전 정비시장의 ‘친환경 서비스 전략’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발전정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이행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등급 달성



우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34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동반성장 평가 등급 상승을 계기로 발전정비업계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청렴혁신 추진단 킥오프 미팅 진행



우리 회사는 4월 23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성된 ‘청렴혁신 TF’의 킥오프 미팅을 갖고 청렴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성규 상임감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킥오프 미팅은 본사 차·실장 전원을 비롯해 전국 60여 개 사업처·소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미팅에서는 부패취약 분야를 도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고위직 주도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이 활발히 이뤄졌다.

카자흐스탄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업무협약



우리 회사는 4월 2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및 두산에너지빌리티와 3자간 ‘노후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알마티를 비롯한 파블로다르, 아스타나, 토파르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노후발전소 대량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이 본격 수출된다면 국내 관련 업체와의 상생·동반성장 및 수출산업화 증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시설 12개소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우리 회사는 올해 ‘빛나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으로 전남 무안군 소재 에덴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전남 순천시·고흥군·강진군·진도군, 충남 부여군·청양군·금산군 등 전국 복지시설 12개소에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들여 총 7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지원사업은 햇수로 6년간 누적 47개소에 총 284k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복지시설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운영비 부담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Z직원과 버거청담회(靑談會) 개최



우리 회사는 5월 27일 이성규 상임감사와 MZ세대가 모여 청렴을 주제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버거 청담회(靑談會)’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MZ세대인 조직구성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이성규 감사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청담회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모인 30여 명의 청년 직원이 참여해 햄버거 식사를 하며 회사의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됐다.

CEO 주관 청렴혁신 협의체 본격 가동



우리 회사는 올해 5월 20일 ‘CEO 청렴혁신 소통회의’를 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체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혁신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김홍연 사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청렴혁신 소통회의’에는 부사장을 비롯한 본사 차·실장과 전국 사업장별 처장 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소통회의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하는 격의 없는 소통이 활발히 이뤄졌다.

나주경찰서에 범죄예방 CCTV 설치비 지원



우리 회사는 5월 30일 본사 소재지 관할서인 나주경찰서를 찾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용을 전달했다. 양 기관이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으며 함께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민·관 협력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원금은 다목적 이동형 CCTV 3대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범죄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민 안전 향상, 각종 현장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 뉴스

2024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우리 회사는 5월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사 및 협력회사가 함께 중대재해 'Zero'달성을 결의했다. 이날 안전경영위원회에는 김도윤 발전안전사업본부 부사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 한은미 교수 등 전문가 위원, 한전KPS 및 협력회사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등 50명이 참석해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안전 다짐 공동서약을 했다.

사업소 뉴스

화성사업소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



김홍연 사장과 조규갑 발전사업처장이 5월 21일 화성사업소에 방문해 CEO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날 발전소 현장을 둘러본 김홍연 사장은 현장 안전보건 경영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OH 공사 수행에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혁신토론회를 주관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율안전 마인드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전사소식]

제9회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테니스 대회 우승



제9회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테니스 대회가 6월 8일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산자부 산하의 총 26개 참가대상기관 중 우리 회사를 포함한 총 19개 기관이 참가, 이 대회에서 우리 회사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게임도 내주지 않고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 회사의 위상을 드높였다. 한편 산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남부발전 이승우 사장이 직접 선수로 참여하는 등 약 25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리를 뜨겁게 빛내주었다.

화성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고등급 달성



화성사업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 대비해 공정 안전 자료와 현장점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화성지사는 5월 24일 중대형 열병합발전소 최초로 공정안전관리 최고등급(P등급)을 인증받았다. 최고등급을 인증받은 사업장은 2,200개 사업장 중 전국에 4% 정도이다. 화성사업소는 지속적으로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최고등급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사업소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



4월 22일 취임한 김도윤 발전안전 부사장이 5월 8일 평택사업소를 방문해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 안전점검에 앞서 김도윤 발전안전 부사장은 신평택발전 황우선 사장을 만나 친환경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이어 김도윤 발전안전 부사장은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본부장과의 만남을 나눈 후 경영진과 함께하는 노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한 작업 수행을 부탁했다.

인천사업소 취약계층 아동에 지원금 후원



인천사업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취약계층 아동 성장지원금 2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활동은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총 20가구, 1가구 당 10만 원)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로, 학습과 건강, 식생활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포사업소 김포열병합 완료로 감사패 수상



김포사업소는 지난 4월 30일 두산에너지빌리티 김포열병합 건설소장으로 부터 국내 최초 김포열병합의 성공적 완료에 따른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는 김포사업소가 안정적인 정비수행을 통해 국내 최초 한·국형 가스터빈이 적용된 열병합발전소의 안정화 기반을 조기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김포열병합 건설소장은 앞으로도 양사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파주사업소 국회의원 표창 수상



파주사업소는 4월 17일 개최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6주년 기념 및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저소득층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사업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윤후덕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파주사업소는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사업소 뉴스

고리1사업소 고리1호기 원전 해체 계통제엄 착수



우리 회사 김홍연 사장은 5월 7일 한수원 고리1호기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엄 착수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고리1호기의 계통제엄은 원전 해체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작업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이어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 산업 전주기 완성에 다가가게 됐다. 고리1호기 해체대상 사업장인 고리1사업소와 계통제엄 용역을 수주한 원정 센터는 올해 6월까지 계통제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찬드리아사업소 Best Business Partner Award 수상



찬드리아사업소는 5월 3일 베단타그룹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Best Business Partner Award를 수상했다. 이번 상은 베단타그룹 산하 발전소 전체 O&M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경영과 운전 성과지표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베단타그룹 회장은 안전경영 및 무결점 정비를 달성해 발전소 이용률과 고객 가치 향상에 기여한 찬드리아사업소에 감사를 표하며 상을 수여했다. 찬드리아사업소는 앞으로도 완벽 정비로 정비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성3사업소 신월성2호기 OH 유공 감사패 수상



월성3사업소는 4월 30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으로부터 무재해 2배 달성 및 신월성2호기 OH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월성3사업소 전직원이 1,050일간 자율 안전관리시스템 정착 등 적극적인 무재해 활동과 다수호기(원자력 6개호기) 계획예방정비 중첩 상황에도 계획예방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제3사업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Event Free OH를 달성해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전했다.

대구경북전력지사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



김홍연 사장은 5월 10일 대구경북전력지사를 찾아 CEO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김홍연 사장은 현장 안전보건경영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경영상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청취했다. 이어 하절기를 맞이해 무재해 안전활동 전개로 중대재해 Zero달성을 위해 안전 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내외 청렴도 제고 노력 및 부패방지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강원충북전력지사 원주시가족센터에 물품 후원



강원충북전력지사 한마음봉사단은 5월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원주시가족센터에 방문해 제13회 건강가족운동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김스넥, 손세정제, 친환경 수건으로 이루어진 이번 후원 물품은 건강가족운동회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력지사는 원주시가족센터와 협력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행사인 건강가족운동회에 대한 후원을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당진사업처 아동보호 맞춤형 사회공헌 업무협약



당진사업처는 5월 21일 '당진시 아동보호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업무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당진시와 당진복지재단, 당진 경찰서가 협약에 참여했다. 당진시가 자원시스템을 총괄운영하고 우리 회사와 경찰서는 2년간 자원 지원과 협력을 그리고 복지재단은 후원금을 운영해 보호대상 아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당진사업처 소통·공감 및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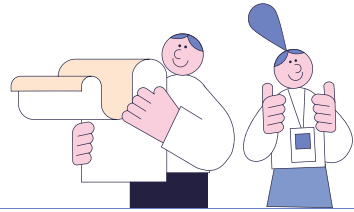
당진사업처는 5월 9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감사의 소통·공감 및 반부패 청렴 실천의지를 현장에 전파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상임감사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부서장들과 연중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직급과 분야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보령사업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보령사업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되어 5월 9일 선정서를 수여 받았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직원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힘쓴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로서 보령사업처는 2010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최우수사업장 수상 이후로 매 3년마다 재심사 과정을 거쳐 2024년 올해로 15년 연속 유지하고 하고 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전반적으로 코너마다 글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게 만들어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전KPS의 40주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100년 기업의 도전도 응원하겠습니다.

_ 김*희 님

40주년 특집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근무를 하신지 40년이 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부터 이제 입사한 후배님들의 이야기까지 한전KPS의 40년이 담긴 특별한 호였습니다.

_ 이*경 님

올해 2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40주년을 담은 특집호를 통해 한전KPS의 오랜 발자취를 엿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_ 김*경 님

한전KPS의 40년 역사가 잘 아카이브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전KPS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기에 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_ 이*훈 님

사보 <KPS STORY>를 통해 회사 전반의 소식이나 다른 사업소의 현장을 접할 수 있어서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늘 좋은 소식 전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_ 남*민 님



지난 호 정답

Q1. 40주년
Q2. 인천사업소

지난 호 당첨자

김*희, 이*경, 김*경,
이*훈, 남*민

※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UIZ TIME

클스 퀴즈

Quiz 1

한전KPS는 2024년을 OO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다양한 OO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p12~15)

Quiz 2

2023년 한전KPS 품질명장을 배출하고 고객만족도 만점의 성적표를 받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p18~21)

퀴즈 정답 제출 및 모바일 염서

Scan Me



스마트 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동해 이번 호의 퀴즈 정답과 함께 <KPS STORY>를 읽은 소감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벤트 마감일 8월 5일까지
경품 발송일 9월 중순



잠깐 휴식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KPS 직원들에게 도착한 다소 엉뚱한 질문에 클스 직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고민하게 되는 밸런스 게임에 대한 클스의 선택과 이유를 들어봅니다.

Q1.

앗! 나의 실수 🤖 당신이 생각하는 더 최악의 상황은?

동료에게 보낼
팅담화 상사 당사자에게 보내기

친구에게 보낼
이불킥 실수담 회사 단독방에 남기기

74.1%

25.9%

김종*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상사에게 찍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망했다..

김지* 회사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긴데 그런 상사와 찢어질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김상* 평소 험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실수하게 된다면 친구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회사 단독방에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김홍*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찢친들에게만 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회사 단독방에 남겼다가 두고두고 놀림당했습니다.

Q2.

이것만은 제발 🤖 당신이 더 피하고 싶은 상황은?

퇴근 10분 전
소집된 긴급회의

43.4%

56.6%

연차 날
쏟아지는 업무 전화

추언* 아이를 유치원에서 하원 시켜야 하는 워킹맘으로 퇴근 시간 절대 지켜야 합니다.

김재* 퇴근 시간 10분 전은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요. 퇴근 후 계획했던 일정도 들어질 테니 10분 전 회의는 사양합니다.

정유* 쉬는 날 회사에서 연락을 받으면 쉬지도 못하고, 업무 처리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최준* 연차를 냈다는 건 쉬기 위해서인데 일 관련 연락을 받으면 제대로 쉬지 못할 거 같아요.

※ 답변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7월 15일 경)